



1



2



3



4



5



6

- 1 전세계 에어쇼를 참가하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T-1 옹비의 저속 비행
- 2 발전형 유인 전략폭격기인 미 공군 B-1B의 비행
- 3 곡예비행 세계 챔피언이자 리투아니아 조종사인 유리기스 카이리시스의 곡예비행은 많은 이들의 탄성을 받았다.
- 4 에어쇼 기간동안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T-50의 수직 급상승 비행
- 5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기동을 선보이는 블랙 이글스
- 6 에어쇼 기간동안 전문관람객과 일반관람객을 포함해 총 24만여 명의 관람객이 서울공항을 찾았다.

서울 에어쇼의 의의

지난 10월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에어쇼 2005'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금년 6월 파리 에어쇼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최초의 2층 여객기 A380을 자랑했다. 또 8월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전략폭격기 Tu-160을 탑승했다. 나날이 치열해지는 연간 95조원 규모의 거대한 세계 항공산업 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다.



| 글 • 최명상 서울 에어쇼 공동본부장 · 전 공군대학 총장 |

각국 정상들이 국익을 위해 에어쇼 전시장에 직접 나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 대통령도 서울 에어쇼를 축하하고 초음속 훈련기 T-50 시뮬레이터를 시승했다. 대단한 홍보효과가 기대된다. 국제 비즈니스적인 '서울 에어쇼'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1909년 시작된 프랑스 파리 에어쇼나 1932년 개최한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비하면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하다. 1986년 시작한 싱가포르 에어쇼에 비교해도 절반의 역사다. 하지만 공군과 서울 에어쇼 공동운영본부의 노력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에어쇼 보다 나은 동북아 최고의 에어쇼로 성장했다.

서울 에어쇼의 목적은 ●● 첫째, 대한민국의 위상제고 및 국가이익 창출에 있다. 전 세계 20여개 에어쇼가 2년 간격으로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때마다 많은 세계 귀빈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번에 국방장관급이 8개국, 총장급이 27개국 참가했다. 우리의 국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 둘째, 선진산업체와 기술교류를 통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있다. 세계 일류 항공우주기술과 제품이 소개되고 첨단무기체계 세미나가 개최됐다. 24개국에서 225개 업체가 참가했다.

●● 셋째, 막강 공군력의 위용과 시 및 군사외교 강화이다. 최신에 전투기와 최고 기량의 조종사를 보유한 한국 공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방태세의 확고함을 보여준다. 공군이 보유한 T-50과 F-15K가 시범비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외국 군사지도자들과 협력을 강화했다.

●● 넷째, 우리 항공우주 및 방산제품의 수출기회 제공이다. 우리는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T-50을 개발·생산했다. 이미 KT-1 훈련기를 수출했다. K-9 자주포와 차기보병장갑차

등도 있다. 참가전시 업체간 상담은 물론 해외 귀빈들 거의가 국방정책의 결정권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제품에 대한 수출의 좋은 기회로 활용됐다. 행사기간 중 한국과 공동개발, 합작 등의 계약이 11억 2,000여만달러어치가 이루어졌다. 또 참가자들에 의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다.

●● 다섯째,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부여하는 데 있다. 한국항공우주소년단이 창단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 끝으로, 국민화합 축제의 장 마련이다.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항공기들의 멋진 묘기와 곡예비행에 무려 20여만 명이 탄성과 신바람을 함께했다.

이렇게 '서울 에어쇼'는 일반 전시회와는 다른 특징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제적 행사다. 우리는 자동차를 수출하여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제 2만달러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항공우주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위선양과 국익창출을 위해 '서울 에어쇼'가 일익을 선도할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에어쇼 경쟁이 치열하다.

주최측은 2020년에는 파리와 판보로 에어쇼에 이은 세계 3대 에어쇼가 되기 위한 '서울 에어쇼 비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상설전시장이 없어 불리한 조건이다. 노 대통령의 참석을 계기로 전시관 건립과 대폭적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에어쇼 2005'의 성공적인 개최에 참여와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